

#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본 다케오시도서관



#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서관 생각

## 2014년 지방선거 공약을 보면,

-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61명 중 도서관 공약 제시한 후보는 15명,  
이 중 6명이 당선
-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694명 중 도서관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169명(24.4%)
- 169명이 250건의 도서관 공약 제시, 1인당 1.48건. 도서관 건립 등 인프라 구축이 223건
  
- 도서관 건립 주요 공약
  - . 청소년문화도서관, 청소년진로도서관,
  - . 방정환다문화어린이도서관, 최고어린이도서관
  - . 생태 등 친환경도서관
  - . UN 평화도서관
  - . 테마형도서관
  - . IT 도서관
  - . 인재도서관



#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서관 생각

##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다케오시도서관의 긍정적 측면

- 현재 다소 권위적이고 관료 냄새가 나는 정통적인 도서관보다 사람들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공간적 구성
- 돈 먹는 하마에서 스타벅스, 서점과 함께 운영하여 수익 모델 창출
- 라이프스타일 제안이라는 문화 상품 요소
-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도서관 운영으로 랜드마크 역할로 지역경제 활성화
  
-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케오시도서관에서 ‘사람’을 만나고, 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고, 스토리를 만들어내고, 복합문화공간을 통한 다양한 역할이 가능한 것에 매력을 느낄 것이며 도서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이다.



#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서관 생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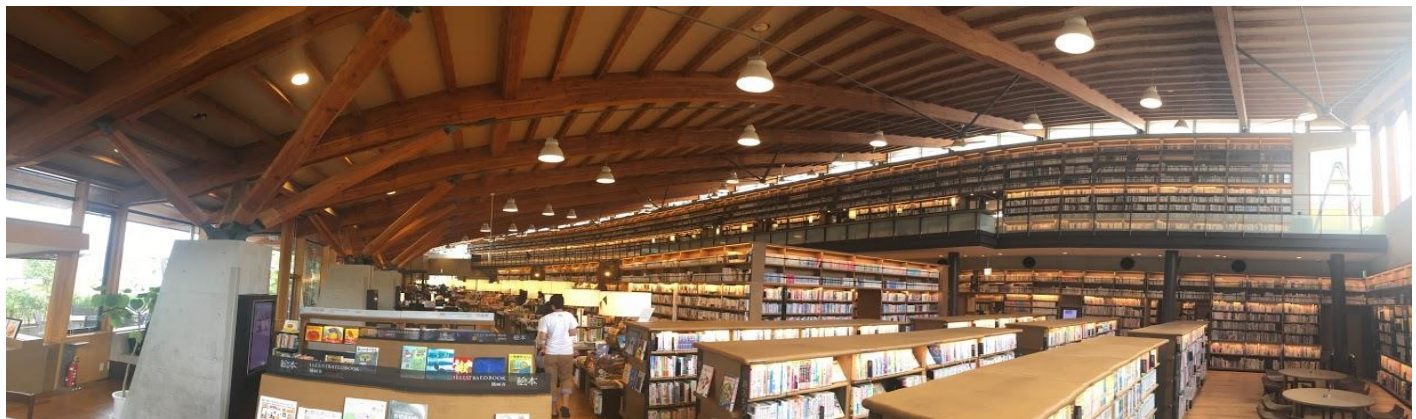
##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다케오시도서관의 부정적 측면

- 공공 건축물 건립의 행정 패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
- 다케오시도서관 규모의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예산상의 부담
- 도서관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도서관 건립을 최우선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현안 문제
-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생각- 정보서비스보다 독서, 놀이터, 사랑방 등의 역할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
-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케오시도서관에 대해  
운영주체의 문제, 서점식 분류 사용, 공공성 훼손의 문제, 이용 계층의 다양성 부족 문제 등은  
고려 대상이 아니며 주민들의 이용 선호도, 평가 및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할 것이다.



# 생각과 제안

-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독립서점 등의 공간구성과 사람들의 이용 패턴을 도서관에 적용
- 도서관 공간,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, 라이프 스타일 제안
- 색인, 주제명표목 등 정보서비스의 홍보, 정보활용교육 등을 지속 운영하여 이용자들 스스로 필요성 인식 증진
- 서점, 커피숍, 레스토랑, 영화관, 평생교육센터 등과 함께 배치하여 이용의 편리성,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도서관과 별개이나, 함께 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제안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의 기반 마련
-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에서의 지식공동체의 역할 강화와 이의 선제적 홍보로 지자체장의 인식 전환 도모



# 미래의 공공도서관은



**도서관은 사람과 아이디어가 만나는 곳이다.  
영감을 주고, 놀라움을 주고, 능력을 주는 곳!**  
(핀란드, the Council for Public Libraries)



# 감사합니다!!

이 정 수  
mariapia1004@gmail.com

